

관련성 이론에 의한 중의적 영어 시간 개념 분석

곽면선*, 이상철**

|| 차례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및 논의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영어 원어민 화자의 중의적 시간에 대한 개념을 관련성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어느 시간의 개념이 더 보편적인지와 중의적 의미를 지닌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Lakoff & Johnson(1980)의 시간 이동과 자아 이동에 관한 시간 은유의 개념과 Sperber & Wilson(1986)의 관련성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중의적 문장을 관련하여 시간 개념에 관한 실험을 하였던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두 개의 중의적 문장을 각각 긍정과 부정적 상황으로 나누었고, 또 이 두 개의 상황을 회의 상황을 비롯하여 총 4개의 상황으로 나누었다. 총 112명의 원어민 화자들로부터 설문 조사에 대한 응답을 들었으며, 설문은 같은 질문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었고 요일의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실험참여자들에게 설문에 대한 어떤 배경지식이나 상황 설명은 주어지지 않았다.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시간 이동의 은유 개념으로 분석하였을 때, 금요일을 선택한 즉, 자아 이동의 개념이 시간 이동의 개념이 월요일보다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둘째, 관련성 이론에 바탕을 둔 분석에서는 화자는 본인 자신의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요일을 선택하므로 이 실험과 같이 상황의 맥락적 설명이 없이 주어진 문장에 따라서만 응답을 할 때에 혼란스럽다는 응답이 87%에 달했다.

* 주저자 대전대학교 혜화 리버럴아츠칼리지(H-LAC) 조교수, myunkwak@dju.ac.kr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sclee@cnu.ac.kr

대부분이 설문참여자들은 월요일과 금요일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는데, 자기와 어느 해석이 가장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요일을 선택하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의미 해석이 본인에게 가장 관련성이 있느냐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해석이 내재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확률적으로 반반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시간에 대한 언어 표현은 문자적 의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그리고 문화적 관련성과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관련성, 맥락, 중의성, 시간 이동, 자아 이동, 문자적 의미, 의미해석

1. 서론

우리가 언어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 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은 추상적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시간을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 표현한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한 언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 시간의 흐름을 은유적으로 구조화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Lakoff & Johnson(1980)은 시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시간을 눈에 보이는 물체가 이동하는 것과 같이 은유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우리가 시간이 움직임이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때 시간은 계속해서 변하고 경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며 움직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크리스마스가 눈에 보이는 물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시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동하는 물체로 개념화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Lakoff & Johnson(1980)은 시간 이동의 은유를 이동하는 시간(이하: MOVING TIME)과 이동하는 자아(이하: MOVING EGO)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시간 이동의 은유를 개념화 할 때 한 문장이 하나의 시간 이동 은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MOVING TIME과 MOVING EGO의 두 가지 시간 이동의 은유를 다 포함하는 중의적 문장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 문장이 사용되는 상황과 문맥에 의해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받는다.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장을 은유의 개념이 아닌 화용론적 개념으로 논의한다면, 문장의 맥락의 설명 없이 발화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Sperber & Wilson(1986)와 같이 관련성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화에서 청자가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대화의 맥락이 중요하며 이는 대화자간의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맥락이 언어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그리고 상황이나 문맥의 특성을 Sperber & Wilson(1986)이 주장한 관련성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문장 자체에 나타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맥적인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의적 문장을 통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험설문에 사용된 중의적 문장은 Next Wednesday's [meeting]¹⁾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와 Let's move the [meeting] ahead a week이며 설문을 통해 시간의 이동에 관한 질문을 상황별로 나누어 원어민 화자들에게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맥락의 설명 없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장을 제시하였을 때,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와 응답으로 어느 시간을 가장 선택하는지를 알아보고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 분석은 첫째, Lakoff & Johnson(1980)의 MOVING TIME과 MOVING EGO을 바탕으로 시간 이동의 은유 개념 이론으로 분석하고 또한, 실험설문의 응답 결과를 Sperber & Wilson(1986)의 관련성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맥락의 관련성을 가질 때 발화의 대화적 함축적 의미가 있다는 이론을 입증하도록 한다. 또한, 설문을 각각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으로 나누어 상황별 결과를 알아보고 동일한 질문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누어 실시하여 응답에 변화가 있는지와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응답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맥락의 관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

1) 긍정과 부정적 상황은 총 네 가지이며 본 논문의 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한 타당성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시간에 대한 개념적 은유

1980년대에 들어서 Lakoff & Johnson(1980)을 비롯하여 많은 인지 언어학자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적 은유를 이동하는 주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는데 특히, Lakoff & Johnson(1980)은 이동하는 주체에 따라 시간을 MOVING TIME과 MOVING EGO, 두 가지의 은유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이동하는 시간(MOVING TIME)

Lakoff & Johnson(1980)의 MOVING TIME에서는 자아는 정지해 있고 시간이 자아를 향하여 움직인다. 자아 즉, Ego 앞에 놓인 것은 미래이고 미래의 시간이 자아를 향해서 다가온다(Chung 2009: 25). MOVING TIME과 관련한 시간 은유의 예시 문장은 다음의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a. The deadline for homework is approaching.
- b. Christmas is coming up soon.

(1)의 예문과 같이 TIME MOVING의 개념에서는 자아는 정지되어 있고 움직이는 주체는 (1a)의 The deadline, 그리고 (1b)의 Christmas이다. Deadline과 Christmas가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시간이 자아 쪽에 이동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Lakoff & Johnson(1999: 42)은 Time flies와 The time for action has arrived와 같은 문장에서도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고 개념화 하는 것이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2) 이동하는 자아(MOVING EGO)

Lakoff & Johnson(1980)는 MOVING EGO 은유에서는 자아(Ego)가 시간을 향하여 이동하고 시간이 정지해 있는 경우이다. 자아의 앞은 미래이고 자아가 미래를 향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아가 정지해 있는 사물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시간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MOVING EGO 시간 은유의 예시 문장은 다음의 (2)의 문장과 같이 들을 수 있다.

- (2) a. We're getting close to Christmas.
- b. We passed the deadline. (Evans 2006: 61)

(2b)는 자아 즉, We가 Christmas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며 (2b) 또한 We가 즉, Ego가 과거의 시간인 deadline을 지나갔으니 시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움직이는 개념으로 문장이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시간 이동의 은유에 관한 분석을 두 개의 하위범주인 MOVING TIME과 MOVING EGO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한 문장이 반드시 MOVING TIME과 MOVING EGO와 같이 둘 중 하나의 은유만으로 개념화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문장과 같이 중의적인 문장은 두 가지의 이동으로 동일한 문장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다음의 예문(3)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의 예시이다.

- (3) a. Let's move the meeting ahead a week.
- b. Next Wednesday's meeting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

Lakoff & Johnson(1999: 148)의 시간 은유의 개념에 의하면 예문 (3a)의 표현은 중의적이다. 이 문장에서 move ahead는 MOVING TIME과 MOVING EGO 은유 두 가지 모두로 개념화 될 수 있다. 이 중의적 개념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가 분석을 하였는데 두 가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의미는 회의가 미래의 어느 시간에 열릴 것으로 예정된 경우, MOVING TIME에서는 시간이 현재를 향해 이동하므로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현재 쪽으로 한 주 앞 당겨지며, 두 번째 의미는 MOVING EGO적으로 개념화하는 경우로 자아가 미래를 향해 이동하므로 회의는 한 주 연기된다. 이것은 동일한 표현에 대해 어떤 개념적 은유가 사용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 해석을 가져오는 보기이다. 임지룡(2002: 212)은 위의 예문 (3a)를 '전경-배경의 역전 현상(figure-ground reversal phenomena)'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움직이는 시간' 은유에서 관찰자는 '배경'이며 시간은 배경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전경'이라고 하였다.

시간의 은유를 연구한 학자들 중에서는 시간의 은유의 유형이 Lakoff & Johnson(1980)이 주장한 위의 이론만으로 단순히 수렴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간 은유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한 학자들이 나타나는데 Nunez & Sweetser(2006)는 시간 은유의 유형이 MOVING TIME과 MOVING EGO로 단순히 수렴되지 않는다고 하여 참조점(Reference Point)로 시간 은유의 유형을 종전보다 세분화하였다. Nunez & Sweetser(2006)는 시간의 은유 개념에서 종전의 MOVING TIME과 MOVING EGO를 자아-참조점(Ego-Reference-Point)과 시간-참조점(Time-Reference-Point)로 분류하였다.

2.2 관련성 이론

관련성 이론의 대표적 학자는 Sperber와 Wilson(1986)이며 이들의 관련성 원리는 Grice(1967)가 제시한 대화협력의 원리와 이와 관련된 격률을 대치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Grice의 접근법과 관련성 이론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Grice(1967)는 발화문의 함축성은 디코딩(decoding)되는 것이 아니라 추론된다고 주장했으며 의사소통의 기본 원리는 협동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리치를 가장 중요한 격률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관련성 이론에서는 협력 원칙과 진리치 격률이 없다. 발화의 목적은 이해 과정의 일부로 필요하다면 확인될 수 있으며 이 이론에서는 발화의 맥락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Grice의 접근법과 관련성 이론의 다른 차이점은 관련성 이론은 규칙 혹은 격률 중심 체계가 아니고 화자들이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격률이나 규칙이 아니다. 관련성의 원리는 대화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예외가 없으며 관련성이 인간의 인지의 기본이므로 따라서 청자와 화자의 대화에서 관련성이 의사소통의 기초라고 본다(김익환 2003).

관련성 이론에서는 이해의 영역을 언어적 의미론(linguistic semantics)과 화용론(pragmatics)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전자는 암호화 된 언어적 의미의 해독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추론적 이해의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국지연, 이성범 2007). 관련성 이론은 인간이 여러 상황 속에서 상대의 발화의 관련성을 찾아가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며 인간의 인지는 관련성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인지적 원리를 가정한다(김익환 2003). 그리고 관련성 이론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에서 추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밝히려는 시도이다(이성범 2001: 250).

관련성 학자들은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맥락 요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화자는 발화시 청자에게 발화 의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청자는 화자의 발화 의미 파악을 위해 맥락적 정보와 화자가 전달한 발화 의도의 단서를 파악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을 한다(Carston, 2000).

다음은 사람들이 중의적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때 어떤 시간 이동 은유로 개념화하는지 지금까지의 선행 실험 연구를 살펴보며 시간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2.3 선행 실험 연구

Boroditsky(2000: 11)는 영어 화자들이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공간과 같은 구체적 개념을 통해 구조화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혔다. Boroditsky(2000)가 실험에서 사용한 문장 Next Wednesday's meeting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이고 96명의 대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실험집단은 공간적 정보와 관련된 사전 질문을 먼저 보여주었고, 통제

집단은 사전질문 없이 목표 질문만으로 어느 요일을 선택하는지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공간 사전 질문에서 자아 이동 프레임(ego-moving frame)을 제시했을 때는 실험집단의 73.3%가 금요일을 선택하였고, 대상 물체 이동 프레임(object-moving frame)을 보여준 후 실험하였을 때는 30.8%가 금요일을 선택하였고 62.9%가 월요일을 선택하여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사전질문 없었던 통제 집단의 결과는 월요일과 금요일이 절반정도로 45.7% 54.3%로 나왔다(Boroditsky 2000: 8-11). 공간적인 도식을 먼저 보여주고 질문하였을 때 그 대답이 일치하는 현상은 공간과 시간의 영역은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구조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Boroditsky 2000: 10). 하지만, 시간을 생각할 때 공간적인 도식이 꼭 필수적이지는 않고 시간 은유 표현은 우리의 경험과 문화와 관련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저장되어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Boroditsky 2000: 26).

Marglies & Crawford(2008)는 시간의 개념을 Ego-Moving Perspective와 Time-Moving Perspective로 분류하고 실험을 통하여 사람들은 긍정적 사건에는 자신이 사건에 다가가고 부정적 사건에는 사건이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하였다(Marglies & Crawford 2008: 1405). Margolies & Crawford(2008)의 실험에서는 애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긍정적 사건과 사랑니를 빼는 것과 같은 부정적 사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테스트 문장은 Next Wednesday's meeting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이었다. 먼저, 요일 질문에서는 긍정적 사건은 58.9%, 부정적 사건에서는 70.5%가 월요일을 선택하여 양쪽 경우 모두 월요일이라는 답이 우세하였다(Margolies & Crawford 2008: 1405). 이 실험을 MOVING TIME과 MOVING EGO적인 시간 은유 개념으로 볼 때 Moving Ego의 개념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시간을 개념화 할 때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장들을 맥락적 상황의 설명 없이 질문을 하였을 때, 응답을 어떠한 쪽으로 하는지 알아보고, 응답의 결과를 시간 이동 은유에서 MOVING TIME과 MOVING EGO의 어느 쪽으로 더 보편적으로 개념화하는지 파악하

는지 알아본다. 또한 실험 참여자들이 요일을 선택할 때 어떠한 해석을 통하여 선택을 하는지를 관련성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 본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결과로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전에, 예문 (3a)와 (3b)에서 사용되고 있는 ahead와 forward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

ahead의 사전적 의미²⁾

- 1) 영어사전 한글 의미: (공간, 시간상으로) 앞으로, 앞에
- 2) 영영사전 의미:
 - i) Something that is ahead is in front of you. If you look ahead, you look directly in front of you.
 - ii) ahead also means in the future.

forward의 사전적 의미

- 1) 영어 사전 한글 의미: (위치가) 앞으로, (시간상으로) 앞으로
- 2) 영영사전 의미:
 - i) If you move or look forward, you move or look in a direction that is in front of you.
 - ii) If you put a clock or watch forward, you change the time shown on it so that it shows a later time.

두 단어 모두 시·공간적 용어로 쓰일 수 있고 ahead는 시간상으로 미래를 나타낸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forward도 ahead와 같이 공간의 용어로 앞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간을 표현할 때는 ‘a later time’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두 단어 모두 공간적으로 앞쪽을 나타내고 시간상으로 미래를 나타낸다. 두 단어 모두 미래를 나타내어도 위의 예문 (3a)와 예문 (3b)에서 의미는 MOVING TIME과 MOVING EGO에서 어떤 개념적 은유가 사용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한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 전달될 수 있다.

2)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6th Editio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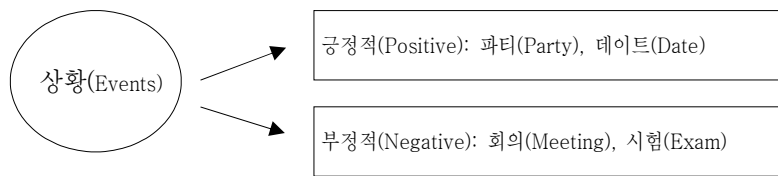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11월에서 2016년 9월에 걸쳐 대전 소재 3개의 대학교 영어 원어민 교수 총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및 전공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원어민이며 출신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하여 총 6개로 나타났다.

3.2 연구 절차 및 기준

연구의 설문지 구성을 위해 설문지 각 페이지에는 상황을 긍정적 부정적 상황으로 나누고 각각을 두 가지 세부상황을 <그림 1>와 같이 나누었다.



<그림 1> 실험 문장 사건 상황 종류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총 두 장으로 작성되었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실험 참여자들의 첫 번째 반응(initial reaction)을 위함이고, 두 번째 페이지는 재 고려(reconsideration)시 도출될 응답으로 첫 페이지와 같은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여 주어진 문항에 다시 응답을 할 기회를 주었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설문 문항으로서, ‘move forward’와 ‘move ahead’를 사용하여 긍정적 부정적 상황으로 나누어 총 8개의 문장이 <표 1>과 같이 작성되었다.

<표 1> 상황별 실험문장 및 실험질문

1. Meeting
1a) Next Wednesday's meeting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
1b) Let's move Wednesday's meeting ahead two days.
2. Exam
2a) Next Wednesday's exam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
2b) Let's move Wednesday's exam ahead two days.
3. Party
3a) Next Wednesday's party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
3b) Let's move Wednesday's party ahead two days.
4. Date
4a) Next Wednesday's date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
4b) Let's move Wednesday's date ahead two days.
실험 질문: Which day is the meeting now that it has been rescheduled?

설문지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영어권 화자들에게 설문지 문장을 여러 번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응답을 요청하여 1차의 선택을 파악하였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같은 질문으로 구성하고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고려하여 답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만약, 결정을 바꾸어 답을 첫 번째 페이지와 다르게 표시했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가장 마지막에는 이 실험질문이 응답을 하는데 혼돈스러웠는지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응답을 두 문장에 따라 각각 선택 요일을 분류하였고 문장의 상황별 요일 선택의 총 건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 21를 사용하여 선택 응답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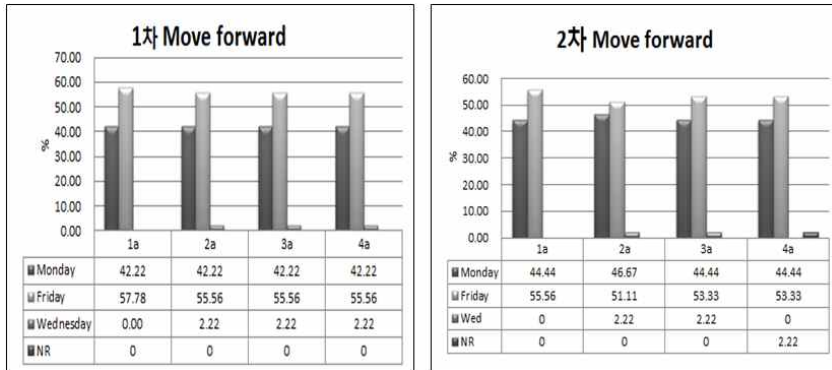
고, 참여자들의 응답의 코딩을 위해 각 상황별 문장을 <표 1>와 같이 각 문장을 1a, 1b, 2a, 2b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수의 응답이 월요일과 금요일로 나뉘었고, 이 두 요일 외에 수요일의 응답도 존재하였으며, 응답하지 않거나 (NR) 모르겠다(etc.)는 응답이 소수이지만 나타났고 이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실험문장으로 사용된 두 문장인, Next Wednesday's [meeting]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과 Let's move Wednesday's [meeting] ahead two days를 문장 유형별로 나누어 실험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상황별 요일을 선택하는데 차이가 발생하였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일의 선택이 다른 실험참여자들도 다수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먼저 요일 선택의 횟수를 백분율로 분석한 양적 분석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실험참여자들이 응답한 주관식 응답을 분석하도록 한다.

4.1 실험문장 유형별 분석결과

먼저 move forward에 실험문장에 나타난 결과는 <그림 2>과 같이 나타났다. 실험참여자들의 응답은 월요일(Monday)과 금요일(Friday)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의 요일은 수요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그림 2>는 move forward에 관한 1차와 2차 분석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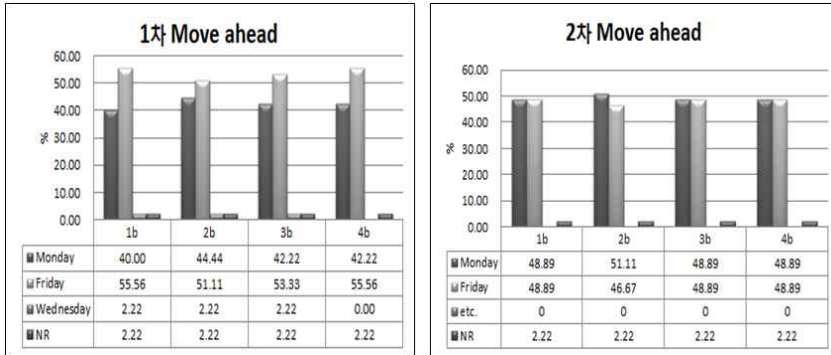


<그림 2> Move Forward 실험문장 상황별 결과(%)

<그림 2>에서 1a, 2a, 3a, 4a는 <표 1>의 상황별 실험문장에서의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하 아래의 결과에서도 이 구분 표시의 의미는 동일함을 밝힌다. Move forward 즉, Next Wednesday's [meeting]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에서 영어 원어민들은 부정적 상황과 긍정적 상황 모두에서 금요일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1, 2차의 응답을 비교하였을 때, 전체의 상황에서 월요일과 금요일 선택의 폭은 1차가 2차 보다 더 크게 나타났지만 금요일을 더 많이 선택한 결과는 동일하였다. 그러나 1차의 회의 상황(1a)이 나머지 3개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월요일과 금요일의 차이가 15.5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2차 선택에서는 두 요일 선택의 차이가 11.12%로 줄어들었다.

다음은 실험문장 중에서 Let's move Wednesday's [meeting] ahead two days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겠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부정적 상황에서 실험참여자들은 1차 설문 결과에서는 1b(meeting)의 상황에서는 금요일 선택이 55.56%로 월요일의 40%보다 15.56% 높게 나왔으나, 2차 결과에서는 두 요일이 각각 48.89%로 같은 비율의 결과가 나타났다. 기타 요일은 수요일이 있었고 2.2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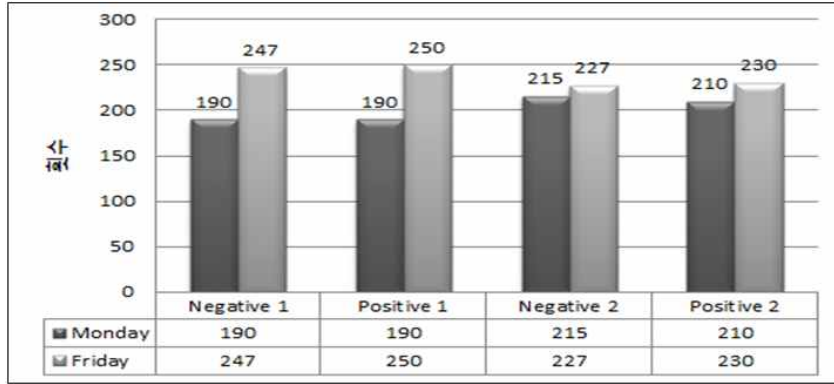
<그림 3> Move head 실험문장 상황별 결과(%)

시험의 상황인 2b에서는 1차에서는 금요일 51.11%로 월요일인 44.44%보다 6.67%가 높게 나타났지만, 2차에서는 월요일을 선택한 응답자가 51.11%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적 상황인 3b(Party)와 4b(Date)에서는 1차 설문에서는 금요일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2차에서는 월요일과 금요일 선택의 결과가 각각 48.89%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첫 번째 실험문장인 move forward와 비교했을 때, 실험참여자들은 move forward의 실험문장일 때 보다 move ahead가 속한 실험문장에서 월요일과 금요일의 선택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2 1차 및 2차 응답 분석결과

다음의 <그림 4>는 실험참여자들의 1차 응답결과와 2차 응답결과를 상황별로 분류하여 선택요일인 월요일과 금요일의 누적 횟수를 산출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1차 응답은 회의의 경우 월요일이 190건으로 나타났고 금요일은 247건으로 나타났다. 1차 응답에서의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금요일이 전체 누적 250건으로 나타났으며 월요일은 190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4> 1, 2차 상황별 응답 결과(빈도횟수)

2차 응답에서는 시험과 회의와 같은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금요일을 227건으로 월요일인 215건 보다 근소하게 더 많이 선택하였고, 파티와 데이트와 같은 긍정적 상황에서는 230건으로 금요일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영어 원어민들은 move forward와 move ahead의 표현이 포함된 영어 문장에서, 1차적으로 의미를 파악할시, 회의에서는 금요일로 시간이 미루어진다는 선택이 더 많았고, 같은 영역인 시험의 상황에서도 근소하게 차이가 나지만 금요일로 일정이 미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문장을 다시 파악하는 2차 응답에서는 두 상황 모두 1차 응답과 같이 금요일이 더 우세했다. 따라서 원어민들이 move forward와 move ahead의 시간의 표현을 재 고려할 때 일정이 뒤로 연기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더 많지만, 월요일이라고 선택한 실험 참여자들과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본 연구 조사의 결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원어민 영어 화자들은 위의 중의적 문장에서 시간의 의미 파악할 때, 금요일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므로 MOVING EGO 쪽으로 시간을 개념화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다시 고려해 보았을 때는 월요일 선택을 많이 하였으므로 MOVING TIME으로 개념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의 응답에서는 금요일과 월요일의 응답 차이가 두드러지지만, 2차에서는 월요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한 것을 <그림 4>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87%가 두 실험문장을 응답할 때 어느 요일인지 혼란스럽다고 하였으며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중의적 문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화의 맥락에 대한 상황 설명이 없이 문장을 대하였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또한, Sperber & Wilson(1986)이 주장한 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의 의미의 이해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명시적 의미뿐만 아니라 함축적 의미가 맥락적 단서가 없이는 결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4.3 응답자들의 주관식 의견 결과 분석

설문조사에서 월요일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문장에서 meeting과 같은 사건이 본인에게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나타냈다. 아래의 내용은 설문지에 참여자들이 명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4) Informant A: I chose Monday for all the sentences as I picture the meeting moving to me.

이와 같은 설명은 시간이 자아에게 이동하는 Lakoff & Johnson의 MOVING TIME의 시간 은유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unez & Sweetser(2006)의 Ego RP에서 동적인 구조 내에 MOVING TIME적인 개념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4)의 Informant A는 'earlier'를 사용하여 회의가 더 앞으로 정해졌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the meeting'이 'me'에게 오고 있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시간이 움직이지만 자아가 중심이 되어 시간이 이동한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Margolies & Crawford(2008)의 실험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월요일 선택이 더 높았고, 사건이 자신에게 더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64.1%로 시간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MOVING TIME적인 시간 은유 개념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본 실험에서는 부정적 사건에서 금요일 선택이 더 높았

지만 두 번째 응답에서는 응답자들이 월요일로 마음을 많이 바꾼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은 문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 사건이 자신을 향해 다가온다고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요일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move ahead와 move forward의 의미를 'later'와 'after'라고 파악했다고 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실험 참여자들이 설문지에 주관식으로 설명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5) Informant B: Forward in my mind means forward or later in time.

(6) Informant C: "move ahead" and "move forward" mean the same thing where I come from and two days after Wednesday is Friday.

(5)의 Informant B는 순수 시간 용어인 'later'를 사용하여 forward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6)의 Informant C는 move ahead와 move forward의 의미를 시·공간적 용어인 'after'를 써서 부연 설명하였다.

다음의 응답은 실험참여자들 자신의 경험을 통한 시간에 관한 해석이 담긴 응답이다.

(7) Informant D: If we look at a calender, moving the date forward by two days means changing the date to a later rather than earlier. However, we usually use the phrase 'move back' to notify people that a certain even has been delayed.

(8) Informant E: My initial reaction was that moving forward and moving ahead means postponing. I believe this was my mind's first reaction because meetings and exams are seldom moved to an earlier time, rather they are usually moved to a later date. In addition, my mind is not trained to pay attention to the literal meaning of "moving forward or moving ahead" because a confirmation date almost always follows in the conversation.

(7)의 Informant D는 일상생활에서 일정의 지연을 공지할 때는 보통 'move back'을 사용한다고 하여 자신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8)의 Informant E가 설명한 내용은 시험이나 회의 일정이 move forward 또는 move ahead가 사용되어 변경되었다고 했을 경우, 일상생활의 경험에 의하면 대개 연기(postponing)되는 경우이지 더 일찍 앞당겨지는 경우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응답은 의사소통 시 언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literal meaning)로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문장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공간과 이동에 관한 시간의 은유에서 벗어나 연구중심을 시간 쪽으로 돌린 Evans(2004)의 인간의 경험과 개념적 측면에서 시간 구조를 분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리고 Sperber & Wilson(1986)의 관련성 이론에 의하여 분석할 때, 청자가 대화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발화의 의미를 파악할 때 명시적 의미 파악에 있어 어휘나 문장 구조를 해석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화용론적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Lakoff & Johnson(1999)가 중의적이라고 하였던 Let's move the meeting ahead a week 문장과 Next Wednesday's meeting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가 중의적이라는 것이 본 실험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실험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때 혼란스럽다고 하였으며 아래의 Informant E와 같이 다수의 영어 화자들은 move forward와 move ahead의 의미는 이틀 전 또는 이틀 후로 둘 다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9) Informant F: I kept changing my mind because I kept getting confused if moving forward is having the function two days earlier or two days later. In the long run I couldn't decide if i was Monday or Friday so I ended up alternating between the two. The more I thought about the question the more I really couldn't decide between the two.

본 실험의 결과에서 나타난 다른 결과로는 실험에서 주어진 중의적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move forward와 move ahead의 중의성을 피하기 위해 'earlier', 'later', 'before', 'after'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순수 시간적 표현 용어(purely temporal term)인 earlier와 later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시·공간적 용어인 before와 after를 사용한 경우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실생활에서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중의적 표현은 배제하고 의미전달의 정확성을 위해 순수 시간적 용어를 사용을 선호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4.4 논의

본 연구의 실험은 Boroditsky(2000)의 실험 결과 중 통제집단 즉, 공간적 사전 정보(priming information) 없이 실시했던 실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Boroditsky(2000) 실험에서도 금요일이 54.3%로 더 우세하게 나왔다. 요일 선택의 차이가 크지 않고 양쪽 모두 절반에 가까운 요일 선택이지만, 실험 참여자들은 금요일을 더 많이 선택하여 중의적인 시간 은유 개념에서 MOVING EGO쪽으로 개념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그 결과는 Margolies & Crawford(2008)의 실험 결과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두 상황 모두에서 금요일이 더 우세하지만 Margolies & Crawford(2008)의 요일 질문에는 두 상황 모두에서 월요일이 더 우세했다. Margolies & Crawford(2008) 실험은 실험 참가자들을 교실에서 동시에 조사하여 본 실험과 조사 방법이 똑같지 않지만 유사한 실험 문장과 질문에 대한 결과 차이는 매우 다르다.

긍정적 사건에서 두 번째 응답에서 금요일 선택과 월요일 선택 비율의 차이는 1.32%로 아주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처음 응답 차이 비율 15.23%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실험 문장을 주의 깊게 생각했을 경우, 긍정적 상황에서 날짜가 move forward와 move

ahead 된다고 했을 때 그 날짜가 나중(later) 보다는 더 일찍(earlier)으로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간이 이동하여 파티와 데이트와 같은 사건이 이를 전인 월요일로 재조정되었다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니 MOVING TIME으로 개념화 하는 것이다.

위의 실험 결과로 볼 때, 참여자들이 실험문장과 질문을 재고한 후, 여전히 금요일이 더 우세했지만 그 차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첫 번째 응답에서의 요일 차이와 두 번째 응답에서의 요일 차이가 확연히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월요일과 금요일중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때 자기와 어느 해석이 가장 관련 있는지에 따라 선택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경우는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다다가는 해석을 선호하고, 부정적인 경우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해석을 선호하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상이 반드시 맞지 않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해석이 본인에게 가장 관련성이 있느냐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것은 해석이 내재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인과의 관련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확률적으로 각각 절반으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개념화할 때 사용되는 은유 표현 중 이동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MOVING TIME과 MOVING EGO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중의적 표현이 있는 문장의 중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간 은유 개념에서 어떤 이동이 더 영어 원어민 화자들에게 더 보편적인지 알아보았다.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본 실험의 영어 원어민들은 요일 선택에서 전체적으로 금요일로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 사건으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을 때도 역시 응답은 금요일이 더 우세했다.

비록 이번 조사로 영어 원어민들의 보편적 시간 개념 성향을 단정을 짓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분명 실험 문장의 중의성을 확인했고 원어민들은 시간을 표현할 때 의미의 정확성을 위해 ahead와 forward 보다는 earlier, later와 같은 순수 시간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았다.

또한, 실험 응답자들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시 언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literal meaning)로만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경험을 토대로 한 주관적 해석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개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인지언어학의 체험주의 관점에서 시간을 개념화 한다는 이론과 화용론적 관점에서 어휘나 문장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추론 과정이 전체 문장의 의미 해석을 뒤받쳐 준다는 중요한 부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청자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발화가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맥락을 파악하려 하고 자신에게 관련된 여러 화용론적 요소들을 동원하여 전체적인 발화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 결과대로 나온 중의적 응답 즉, 월요일과 금요일 선택이 반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실험자들의 본인들의 주관적 관점에서 의미 파악을 하므로 실험문장들의 중의성이 확인되었고, 실 생활에서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명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혼돈스러운 중의적 시간 이동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순수 시간 표현을 사용하다는 것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일부 실험 참여자들은 연구 설문지의 실험문장에서 긍정적 상황에서 설정하였던 데이트(Date)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이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데이트라는 상황은 남녀 관계의 아주 사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므로 형식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move forward와 move ahead의 표현과는 맞지 않거나 잘 쓰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었다. 본 연구자가 실험을 위해 상황을 설정하고 문장이 사용 가능한지 영어 원어민 화자에게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 이와 같이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move forward와 move ahead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시간의 개념 파악에서 분명하지 않거나 화자에 따라 개인적인 파악이 다를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은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

없이 시간을 언어로 표현할 때 마치 보이는 개념으로 통해 표현하려 한다. 시간에 대한 언어 표현은 문자적 의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그리고 문화적 관련성과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ABSTRACT]

Analysis of Time Concept of Native Speakers with the Ambiguous
Time Sentences: Focusing on Relevance Theory.

Kwak, Myunsun · Lee, Sangcheol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types of time concept which native speakers use in the case of facing ambiguous statements based on Lakoff & Johnson(1980)'s the time concept of moving time and moving ego and based on Sperber & Wilson(1986)'s Relevance Theory. The research conducted a survey and gained 112 reponses from English native speakers. There were two ambiguous sentences in the survey, Next Wednesday's meeting has been moved forward two days and Let's move a meeting two days ahead. These two sentences were set up for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including meeting and there are the total of 8 events. No detailed descriptions for the events were given and the same set of the questions were asked again for the reconsideration. Majority of respondents decided either Monday and Friday. The results show Friday was more preferred for the answers and this indicates that many native speakers use the concept of moving ego. However, many respondents expressed that they were confused by the survey questions given the context. This shows without the given context, only with literal meaning, it is difficult for the hearers to understand the speaker's intention. This proves the relevance theory claim and adds that the importance of the context and relevant factors when figuring out and interpreting the speaker's utterance during the conversations.

Key Words: Relevance Theory, context, ambiguity, moving ego, moving time, literal meaning, meaning interpretation

참고문헌

□ 단행본

- 이성범,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1.
- Evans, V., *The Structure of Time: Language, Meaning and Temporal Cogn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2004.
- Kovecses, Z.,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Lakoff, G. & M. Johnson, *Metaphor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Lakoff, G. & M.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New York, Basic Books, 1999.
- Sperber, D. & D.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Blackwell, Oxford and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논문

- 국지연, 이성범, 「말해진 것의 명시 의미」, 『담화와 인지』, 담화인지언어학회, 14(2), 2007, 1-25면.
- 김익환, 「맥락의 특성과 언어사용과의 관계」, 『영어교육연구』 26, 영어교육학회, 2003, 7-34면.
- 박정운, 「앞으로 한달 뒤에 만납시다: 시간의 개념적 은유」, 『언어와 언어학』 23, 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1998, 85-100면.
- 임지룡, 「시간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77』, 한국어학회, 2002, 201-222면.
- 송현주, 「관용표현에 나타난 인지언어학적 접근」, 『국제언어문학』, 국제언어문학회, 2015, 71-95면.
- Boroditsky, L., *Metaphoric structuring: Understanding time through spatial metaphors*. *Cognition*, 75, 2000, 1-28면.
- Chung, J. *An Analysis of Metaphorical Expressions on Time: With Reference to English Korean*. MA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9.
- Gentner, D., M. Imai & L. Boroditsky, *As times goes by: Evidence for two systems in processing space →time metaphors*.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7, 2002, 537-565면.
- Margolies, S. O. & L. E. Crawford, *Event valence and spatial metaphors of time*, *Cognition & Emotion*, 22:7, 2008, 1401-1414면.

Nunez, R. E. & E. Sweetser, With the Future Behind: Them: Convergent Evidence From Aymara Language and Gesture in the Crosslinguistic Comparison of Spatial Construals of Time. *Cognitive Science*, 30, 2006, 401-450면.

□ 인터넷 출처

<http://endic.naver.com> by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6th Edition,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9.

이 논문은 2016년 11월 4일 접수되어 12월 6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

